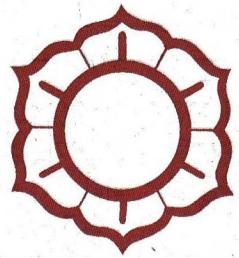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새기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2월 2일
월요일
제52호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종령 신년 법어



부처님의 법문이 팔만 사천이라고 하나,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허공의 말이니, 경구 한 구절 내 마음 속 깊이 있으면 팔만사천 법문이 다 내 것입니다.

법문이 좋다 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또한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오, 실천하며 닦고, 닦으며 실천하는 가운데 나의 불성은 절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실천은 우리 일상에 있음이니, 신·구·의로 짓는 죄업을 금하는 것이오, 양설하여 이간하지 않는 것이며, 악구하여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오, 꾸며서 남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망어로 남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함께 내가 모든 중생이며, 모든 중생이 바로 나임을 깊이 인식하는 동체대비심의 보살정신이 따리야 합니다. 그것은 일즉다(一即多) 즉자일(多即一), 일입다(日入多) 다입일(多入一)의 대승적 실천을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와 “너”라는 분별심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실천했다 해도 그것은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실천! 그 모두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하는 것에 귀착됩니다. 내 마음 닦는 데 정진한다면 나의 실천은 절로 되는 것이며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경에 이르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안락과 지혜를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보살도에 들어 원망청정한 과보를 속히 즐득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자대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보살도 실천에 일심 정진합시다. 음마니반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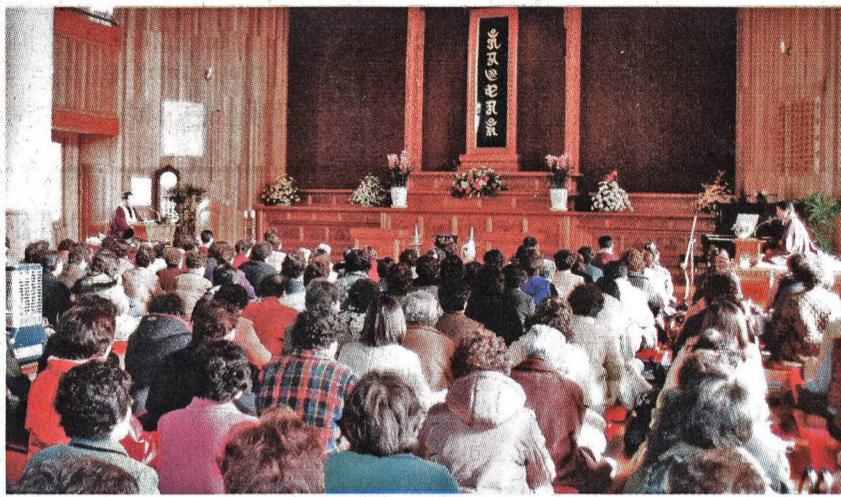
총기 33년(갑신년) 새해 아침
불교 총지종 종령 수성 합장



총지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11명의 신규스승들이 대구 개천사에서 전법관례를 수계 받았다.

로 삼세종에 중생제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이를 극복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수성 종령예하는 “이번에 종단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규스승으로 계를 받았습니다. 도반들이 많은 만큼 더욱 용맹정진해야 하고, 언행을 바르게 행해야 하며, 항상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의 마음가짐으로 실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제 교도의 입장에서 승

“재난소멸, 소원성취” 발원 새해 대서원 정진 불공



부산 정각사 교도들이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위해 자심으로 새해 대서원 정진 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지종은 총지종의 종지에 따라 1년 동안의 건강과 행복,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고, 당체설법으로 새해불공중에 발행한 법문으로 미래에 닥쳐올 마장을 미연에 예방하여 재난을 소멸하고, 갑신년 한 해동안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새해 대서원 정진불공을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사원에서 가졌다.

특히 11일 저녁에는 밤9시부터 새벽4시까지 7시간 철야정진을 가짐으로써 부처님의 고행과 해탈의 경지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소원성취를 자심으로 발원하는 불공을 드렸다.

새해불공 중에 법공 통리원장은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

자리를 살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종교이며, 자비의 실천으로 번뇌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하고 성불을 이루게 하는 종교이다. 이러한 해탈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보살피고,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 이번 새해불공을 통해 각자 성불하여 살아있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부처가 되고, 교도가정에 재난이 소멸되어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길 지심으로 서원하며 올해에는 마음속에 자리잡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불살라 버리고 남을 용서하는 자세로 생활하자”고 말하였다.

새해 대서원 정진 불공에 동참한 한 교도는 “참종 당시부터 총지종에 입교하여 매년마다 새해불공에 동참하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불공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불공의 느낌은 하루 하루가 다르며, 새해불공을 잘하면 한 해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불공에 미장이 일어나고 잡념이 생기면 꼭 집안에 나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새해에는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수행자로서 철저한 자기 인욕으로 정진을 한다.”고 밝혔다.

신년하례법회 및 퇴임식

옹서와 화합으로 도약의 해

총지종은 1월 13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전국 스승님 및 종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 및 퇴임식을 봉행하였다.

신년하례법회에서 수성 종령예하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 승단 스승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계행을 지키며 철저한 자기 수행으로 자신의 허물을 먼저 헤아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전승단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서로 간에 지었던 나쁜 업은 모두 잊어 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종단의 화합된 힘으로 총기 33년에는 활화산같이 태오르는 불꽃처럼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도록 중생제도에 조금 더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신년하례법회 후 법정, 무공, 사홍화, 지선행, 법지원 5명의 스승님이 교회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에서 법정 정사는 퇴임사를 통해 “세월의 덧없음을 다시한번 느끼며, 지난 과거를 돌아켜보며 중생제도를 위해 교회의 길을 선택하였음에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후배 스승들이 각자 교도들을 위해 자신의 안락과 평화를 버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좋은 업을 짓기 바라며, 선배들이 이루지 못한 종단발전과 중생제도의 혁신과 성취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죽비소리

과거는 잘했건 잘못했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지금 없는 것이다.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지워 버릴 일이고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번 명심하고 불에 태워 버릴 일이다.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짐작도 금기이다.

바람에 몰려가는 구름을 보고 이 지혜를 받아 들이라.

박노순『큰사람-그대 삶의 멘동이 트는 날』중에서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은 나와 이웃을 둘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비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 총기 33년 2월 20일~총기 33년 4월 8일

장소 : 불교 총지종 전사원

대상 : 모든 불자 및 총지종 교도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jong



이 달의 종조법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어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것이 곧 생활이다. 이 생활은 곧 인연과의 순환이다. 이 순환이 나쁜 것을 악순환이라고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선만이 가능하다. 한생 한 것을 없애는 것은 열매인 것과 같아...

각 교구장 신년사



부산경남 교구장 혜암

갑신년 새해 아침에 동쪽에 둑근 태양이 떴다. 비로자나 대일여래는 제암편명(陰暗遍明) 능성중무(能成衆務), 광무생멸(光無生滅)의 삼덕을 갖춘 여래지혜(如來智慧)의 일광(日光)은 일체처(一切處)에 걸쳐 비추기에 대일(大日)이라 하며 이로인해 삼라만상(森羅萬象)을 키워내듯 여래(如來)의 광명(光明)은 법계(法界)에 두루 비추면서 중생(衆生)의 근기(根機)와 업력(業力)에 따라 세간성취(世間成就)는 물론 출세간(出世間)의 성취(成就)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법신설법(法身說法)은 풍성수성(風聲水聲)이 진여래설(眞如來說)이라, 바람소리 물소리가 비로자나 법아님이 없다. 세상을 바로 보면 우주(宇宙)의 형형색색(形形色色)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청정법신(淸淨法身) 부처님 그분의 설법이다.

우리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활활 타는 불을 보고 흙으로 스승을 삼으라 하였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으로 대지혜를 즐득

해와 달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없고, 빙부귀천 유식무식의 차별없이 평등하여 항상 비하고 상(相)을 내지 않으며 맷가를 바라지 않는다.

또 활활 타는 불을 보고 스승을 삼으라. 작은 성냥 한개가 만리(萬里)의 들을 다 태우듯이 마음의 불로써 백년해로 가다하고 다야 좋은 공덕(功德)이 다탏버린다. “심화(心火)는 자연(自然) 공덕(功德林)이라” 흙으로 스승을 삼으라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새해 아침의 햇살 만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용맹정진으로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에도 변함없는 정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한 해에는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매 순간 간마다 소중한 시간이고 만남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인연화합은 수행하는 우리들이 있어서는 안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합시다.

세상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뛰어넘어야 해도 대인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끼리 어울리는 일로 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일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눈에 빠져 허위적 거리기도 합니다. 제 명대로 살



서울경인 교구장 해정

좋은 인연을 맺자

지 못하고 나머지 생애를 포기하고 마는 것도 대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데서 오는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합시다.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땅, 오줌도 한삽의 흙으로 덮어주면 냄새도 더러움도 다 감싸고 그 놈이 변하여 만물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듯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상(相)을 내지 말며, 맷가를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복(福)이 되고 공덕(功德)이 된다.

이런 공덕(功德)으로 진언행자(眞言行者)가 비로자나 법계궁인 만다라에 들어가게 되면 능히 유정(有情)의 오취(五趣)를 끊어 생사업장(生死業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으며 곧 오해탈륜(五解脱輪)에 들어와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얻어 성불(成佛)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만다라 국토에서 보리심의 종자를 부처님의 복전(福田)에 심어 대비(大悲)의 물을 주고 대지혜(大智慧)의 빛을 비춰 주고 방편의 바람으로 보리과(菩提果)를 즐득(證得)하여 모두 소성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만다라 국토에서 보리심의 종자를 부처님의 복전(福田)에 심어 대비(大悲)의 물을 주고 대지혜(大智慧)의 빛을 비춰 주고 방편의 바람으로 보리과(菩提果)를 즐득(證得)하여 모두 소성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 삽만한 세상에서 커다란 위로요 의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가까이는 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스승이 거기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 맺기는 다른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언연송과 함께 남을 위해 봉사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이 나의 정신세계를 밝게 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인연을 짓는 데서 기득차게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맺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신 비로자나부처님의 당체설법을 통해 지혜를 즐득하게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공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나 현상, 어려운 난관과 고난 등을 만나게 되는데, 난관을 극복하여 능히 공덕을 성취하되 요말(漁末)의 중생은 삼엽이 습성되고 삼독(三毒)이 고질(痼疾)되어 있는 고로 병에 응해 약

당체법문은 비로자나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

진언연송을 통해 당체설법의 지혜를 즐득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난관과 현상이 곧 미장(魔障)이 되고, 회사법을 쓰며 염송정진에 들어가 이를 잘 받아들이고 지혜로써 헤쳐나가면 그 난관과 현상들은 나에게 당체법문(當體法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당체법문을 통해 진언행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언행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다. 진언연송을 통해 당체설법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를 맛볼 수 없다. 바로 법

언제나 격려해 주신 보살님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복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베풀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무엇을 되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와서 저질러 놓은 수많은 악업으로 인류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선행 덕분에 오늘 우리는 발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항상 충실히

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사람으로 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여 그 이름부터



충전교구 교구장 법성

새해에는 소중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작은 일에도 항상 충실히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사람으로 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여 그 이름부터

위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은혜로서 가득 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과 부끄러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각오로 올 한해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새해 신년불공은 한 해를 시작하는 불공으로 시인 과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꺾고 구멍이

면 마지막 단추는 꺾고 구멍이 없어진다’고 말했듯이 진언밀교 정법도량에서 법문을 듣고

용맹정진하여 선연의 공덕을 배풀어 봄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보살님 여러분들께 소중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참 어리석습니다. 힘 줄기를 부여하고, 흰 쥐와 검은 쥐가 생명 줄기를 아삭아삭 깎아먹고 있는데도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는 모든 것은 변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 어느 것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 흐름이 빠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하루쯤 가다가 서서히 식어 없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마음 한구석에 머물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고서 그 마음이 풀립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만 같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것만 같지만 언젠가는 늙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백년도 못되는 생입니다. 그 기간동안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을 포기하고 명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순간 위에서 다섯 방울의 달콤한 꿀이 펼쳐졌다. 우물기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벌들이 거기에 벌집을 짓고 윙윙 날아오를 때마다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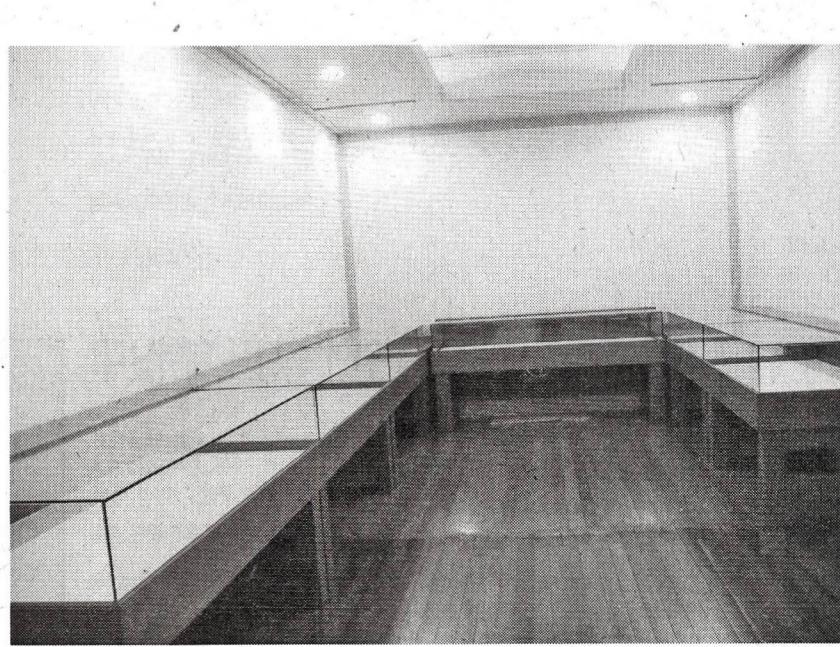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그 꿀을 받았으면서 미친 코끼리가 긴 숨을 물이 쉬며 코를 들이대고 있고, 밑에서는 용과 뱀이 함께 혀를 널름거리니 꼼작달싹 도는 듯하는 신세가 되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힘 줄기만 꼭 부여잡고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자신이 잡고 있는 힘 줄기를 보니,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위줄기를 깎아먹고 있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

신경을 쓰인다. 왜 그럴까? 당체법문을 제대로 수행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좋지 못한 공업(共業)만을 짓고 있을 뿐이다.

법문을 당한 이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그 이의 불행을 안타까워 하고 빨리 해탈하기를 서원하자. 법문을 보게 되면 너와나 할 것이 없이 일체 말을 삼가하고, 스스로 법문임을 자각하고 마음속으로 짐작하며 오로지 불공과 회사법으로 묵묵히 정진으로 해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입으로 ‘법문이다. 법문이네.’하고 떠들 일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언행(言行)들이다. 해탈과 소원의 성취는 요원할 뿐이다. 남의 우환과 불행을 안타까워 하며 말없는 가운데서 불공하고 회사법을 세워 주는 것이 바쁜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생활 속의 밀교 수행이요 당체법문의 바른 이해이다.

〈법경/법장원 연구원〉

종조님의 유품 및 관련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 대성사 !!!

대성사의 창종정신과 대비원(大悲願)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종조기념관’ !!!

이제 그 화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조기념관에 전시할 유품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나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스승님이나 교도 여러분께서는 법장원이나 통리원 총무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불교총지종 법장원 · 통리원 총무부. 전화 (02) 552-1080~3

불교총지종 통리원 법공

- 수집자료 내용 -

1. 유물류

- 종조께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계셨던 물건.

2. 사진류

- 종단관련 행사나 대외행사, 기타 개인적인 일로 찍었던 일체의 사진.

3. 종단의 교학이나 종조법설 및 기타 강공자료

- 종조님께서 강공회나 기타 행사시에 설하셨던 법문이나 강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

4. 서신류(書信類)

- 종조님과 왕래했던 서신류.

5. 기타

- 종조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

총지논단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쓴 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청중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종 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성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순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어버이와 자식>

물질시대 사람은 연애와 사랑으로써 한편에 기울어져서 자연 사귀게 되는 때 이므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과 사위와 딸이 한 집에 같이 살고 또 한 곳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는 자연 정신적으로 한편은 후하게 되고 한편은 박하게 되어 자연 서로 원망이 나고 속으로 원수지며 입으로 싸우고 몸으로 다투는 것은 어느 집을 물론하고 다 이와 같이 되어 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된다.

그런 깊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만약 일년에 한 두 번씩 만나게 된다

면 그리워서 서로 자주 만나 보기로 원하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원망도 원수도 없고 말로써 싸울 일도 없고 몸으로써 디를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갈수록 더 일어나고 어버이와 자식에 참된 사랑과 친한 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니 천륜 뿐만 아니라 이심십년 동안 기르고 교육시키고 성취하여 준 그 친한 사랑의 정은 비록 떨어져 멀리 산다고 해서 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잊어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자식을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될 것이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친하고 사랑할 도리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며 한 집에 살고 가까이 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윤리가 없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그 윤리를 흥왕케 하던 때가 멀어졌고 멀어지지 않는 데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공자(孔子) 때 윤리를 일으키던 세상이 멀어지고 다른 세상을 많이 지나 오다가 전문적 윤리가 필요해서 새로 일으킬 때는 가족이 모여서 여러 세대로 같이 살아야만 일가족으로 친한 윤리를 알게 되고 윤리도덕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다.

부모 자식과 형제 친척이 항상 서로 싸우고 원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자손이 안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느니라. 한 집에 가까이 살게 되므로 자식들의 뜻을 세워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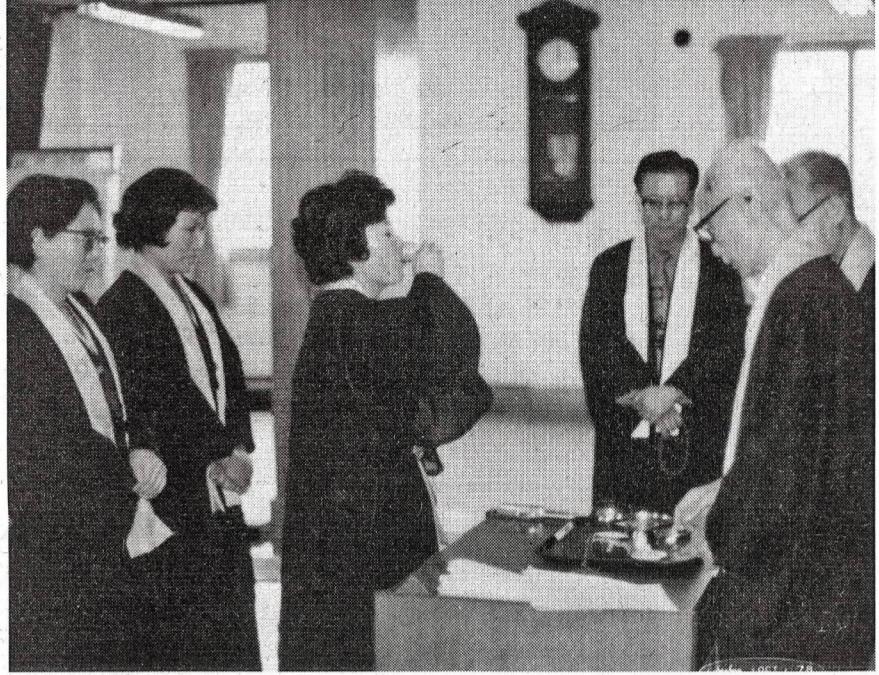
병은 서로 떨어져서 멀리 사는 것 밖에 더 좋은 애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곧 이와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원주의시대는 한 집에 통솔해서 살게 되는 데 윤리만 일어날 뿐 아니라 오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心德)의 대원(大元)이요



효순은 심덕(心德)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

부부에는 서로간의 평등과 존경, 신양적 동일체

복이 겹친(兼全)하게 되었고 이원주의시대는 집을 나누어서 자주(自主)로 살게 되는데 윤리만 보존될 뿐 아니라 행복으로 살게 된다. 그러나 홀로 된 부모는 자식에게 사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자식들의 뜻을 세워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백행의 근본이라

심인불교(心印佛教)의 유품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편과 아내>

중생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차별이 있

어서 스스로 평등하게 되지 못하므로 지혜있는 이와 어리석은 이를 평등하게 하자면 어리석은 자를 먼저 가르치고 쉽게 깨닫는 교화가 나와야 될 것이다.

남녀를 평등하게 하자면 오백년 동안에 어둡게 된 여성의 본능인 지성을 밝히는 교가 나와서 부녀가 먼저 교화를 받게 되어야 일가에서 부부가 평등하고 일가가 평등한 연후에 국가도 평등하며 세계도 평화가 되느니라.

천지(天地)는 음양(陰陽)이요, 만물(萬物)은 자용(雌雄)이라. 음과 양의 본성을 말하면, 음은 정체(靜體)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당겨오는 힘을 가지고, 양은 동체(動體)임에도 불구하고 음을 따라가는 힘을 가지고.

비유컨대 공중에 찬바람이 일어나서 검은 구름 한 덩어리 음체가 이루어지고 그 음체는 사방의 양을 당겨 와서 음과 양이 회합하는 동시에 번개와 우뢰가 일어나고 비가 내리게 되며, 양은 음을 당겨 오지 못하므로 가무는 날에 비가 오는 것은 어렵고, 음은 양을 당겨 오므로 장마지던 날도 개이기는 쉬우며, 만물의 자(雌)와 응(雄)의 본성을 말하면 자(雌)는 정적(靜的)이며

서도 응(雄)은 당겨오는

본능을 가지고 응(雄)은 동적(動的)이며

서도 자(雌)를 따라가는

본능을 가졌는 것은 유정동물(有情動物)에

만 한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식물과 광물에 까지라도 자세히 보면 자화가 응화분을 옮겨 와서 결실하고, 쇠는 지남석에 나타나지 않는 속기운에 따라 붙는 것을 보고 알겠노다.

사람도 남녀의 이성은 만물과 본래 조

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만물 가운데 오직 지혜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인도(人道)를 세워 오는 오백년 가운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중도와 삼강오륜의 인도를 일으키게 되니 봉건적 도와 법과 예와 범절로서 가정은 부르고 아니라 파르게 되어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게 되었던 것인데, 공도(公道)가 서는 시대가 왔으므로 서양에서 들어오는 물도(物道)가 서는 데 따라 인도를 세우는 유교가 쇠하게 되니 강운구속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 사람도 모든 만물과 같이 평등하고 평등한 본성에 돌아와서 부부가 근본이 되어 가므로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을 이가 없게 되었다.

내가 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악한 사람이 될 것이요 내가 착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지도 다 아는 것이다. 현대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에게 따르는 것은 아내의 뜻보다 더 잘 되는 것 이 없는 고로 부인이 교를 믿어서 착한 보살이 되면 남편도 착해져서 이성 각자가 되느니라.

부부는 일체이므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과거 인도를 세우던 일원시대의 범절 도덕은 남편이 배워서 아내의 범절에 모범이 되었던 것이요 현재 물도를 세우는 이원시대의 양심 종교는 아내가 먼저 삼인을 깨쳐서 남편의 마음 안에 해인(海印)으로 밝아지게 하는 동시에 남편도 따라서 진각님을 믿고 이성을 깨닫게 되느니라.

과거는 실상이라 뜻을 말하고 형상을 보여서 가르치고 모범이 되었던 것이요 현재는 진리와 뜻을 말하지도 않고 형상을 보이지도 않는 데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는 곧 아내가 삼인을 깨쳐서 실천하는 것을 남편에게 말을 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뜻 그대로 남편에게 그 지성(至誠)으로 하여금 반영되도록 것이다.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조선화원장의 총지 통의 보감

남성 갱년기 장애

2004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달이 지나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설날 명절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찾은 솔자리와 모임으로 인해 상당한 피로가 쌓이거나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식습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약속은 고기종류나 생선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가격적인 면에서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80년대 이후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우리의 식습관도 육류중심으로 바뀌어 각종 성인병의 증가로 이어져 남자의 경우 갱년기가 빨리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갱년기는 내분비계의 남성호르몬이 점차 감소하면서 체내의 여성 호르몬 비율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이며, 이런 정도가 심하면 갱년기 장애라 부

갱년기는 생리적 혹은 병리적 변화 과정중에 발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서의 증상이 미약하여 여성들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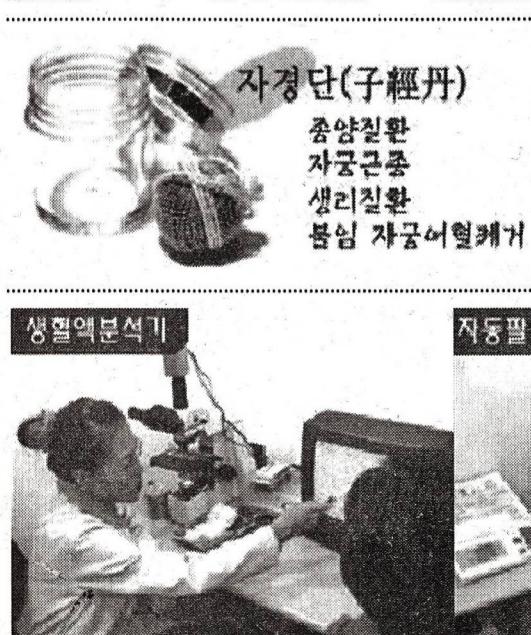
한의사인 황제내경에서는 인간의 생로병사가 여자는 음의 수자인 7수에 따르고 남자는 양의 수인 8수에 따른

다하여, 남녀의 연령에 따른 생장발육과 노화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8x8(64세)에 천계가 고갈되고 정이 적어지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녀의 생식기능을 촉진하는 것을 "천계"라 하는데 남성의 경우 성기능이 왕성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늦으며 성기능이 쇠퇴하는 시기도 여성보다 늦어,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의 50세보다 늦은 55~65세에 나타나며, 발현하는 증상도 여성에 비하여

노쇠해 가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예라 할수 있습니다.

여성은 골다공증과 얼굴에 열이 오르고 땀이 흐르는 조열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남성은 감정의 변화와 성적능력의 감퇴가 주요증상이 됩니다.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각종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여 대인 관계를 넓히고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열량, 저지방, 저당, 고단백, 고섬유소의 식품으로 영양을 강화하면서 성선의 기능을 증강시키는 식품인 새우, 채소, 닭고기, 부추, 호도 등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과 심혈관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돼지고기, 대추, 용인육, 뽕나무열매 등을 자주 먹는 것도 필요하나, 자신의 조건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하며, 갱년기는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마음자세를 편안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 미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자(임덧), 임신증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가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탑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일@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일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가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탑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일@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일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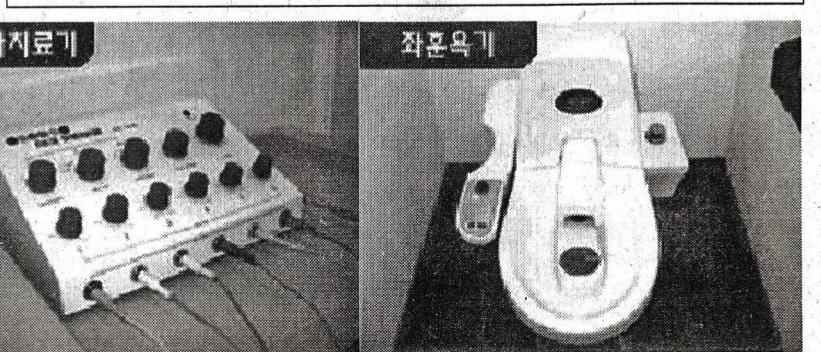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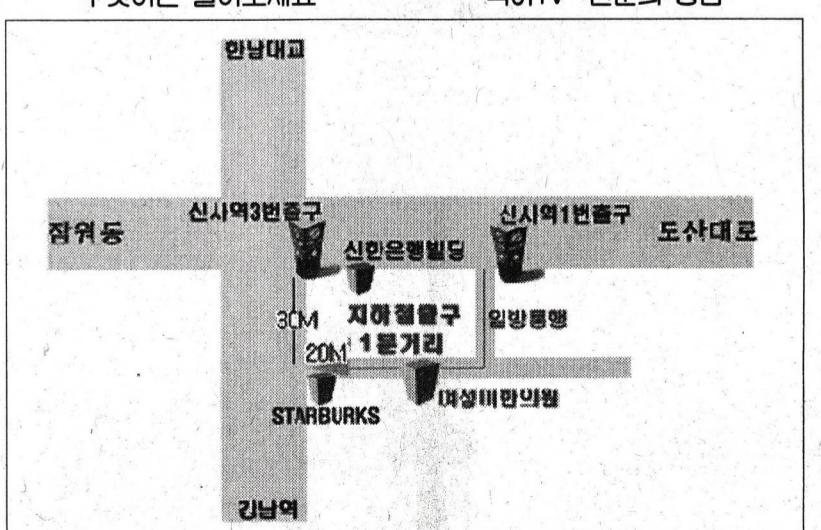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성 미 한의원 원장" 육아TV "전문의 상담"



종교소리

사람의 마음

어느날 마당에서 토끼에게 풀을 먹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하지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귀를 잡으면 되지.”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고양이는 어디를 잡아야지요?”
“목덜미를 잡으면 되지.”

이번에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디를 잡아야겠습니까?”

“목덜미를요 아니, 팔을요 아니여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라서 엄마 나이만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목덜미를 잡을 수도, 팔을 잡을 수도 없고
오직 마음을 잡아야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 손광성/수필가

순간을 산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 동안에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자네는 아직 도를 모른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자네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자네는 도를 아는구나.”

- 『사십이장경』중에서

나도 한마디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며...

세월의 흐름이란 참 빠른 것 같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새해불공을 하느라 분주하게 절을 내집처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종일 불공한 것 같은데 벌써 1달이 지나버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새해불공으로 수행한 지도 벌써 몇 해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세월의 흐름속에 나의 머리카락도 어느덧 하얀 색으로 변하고 음마니반메훔을 염송한 지도 몇십년이 되어 이제 음마니반메훔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기득차 있다.

이렇게 음마니반메훔을 하면서 많은 공덕을 입었다. 처음 입교하였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십일회사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가정형편도 남부럽지 않게넉넉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각자 맑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며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불공하고 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항상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믿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허물대신 본받을 점을 보며 항상 집착하지 않고 탐욕없이 부처님의 법

하루를 살 듯이

일을 시작함에
평생동안 할 일이라 생각하면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는 것도
하루만 하리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오늘 하루만이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백년도 하루의 쌍임이요,
천년도 오늘의 다음날이니
하루를 살 듯
천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 법 현스님/동방불교대 교학처장

행복과 불행

장밋빛 꿈을 안고 한 청년이
〈행복〉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신혼부부의 병에
어느 낮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뉘신데 남의 방에 들어왔소.”
“저는〈불행〉이라는 여자입니다.”
〈행복〉이라는 여자는 한몸이라서
일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나가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방을 나간다면 〈행복〉이라는
여자도 함께 나가야만 합니다.”

- 김원각/시인

〈자료제공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설
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 반야심경편 제 25 화-

글. 그림/정수일



36계
줄행랑을
치신다고
제가
포기 할 줄
아세요?

아차, 그렇지.
온, 처, 계 중
계에 대해서
말하던
중이었지.

그냥 갈걸..

계(界)란 앞서
말한 12처
(육근+육경)에
육식을 더한
것으로 18계를
말합니다.

계(界)란
자유의 세계, 동물의 세계,
과학의 세계, 등을 말할 때의
그 계(界)로서 차별이나 구별
또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아! 맞다.
동물의 세계.

그래, 나도
TV에서 봤어.

불교의 3과의 법문

온(蘊) —색 . 수 . 상 . 행 . 식 (오온)

처(處)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근)

—색 . 성 . 향 . 미 . 촉 . 법 (육경)

계(界)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식)

식 . 식 . 식 . 식 . 식 . 식

12처

18
계

이해를 돋기 위해 18계중
안계를 예로 들자면 안계, 즉
“눈의 세계”란 육근의 하나님인
“안(눈)”과 그 대상인 육경중의
하나인 “색(물질)”과 그것을
어떤 물질이라 판단하고 알아
내는 시신경, 즉 육식중의 하나님
안식이 합쳐져서 안계(눈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계란
혀가 있고 엣이 있고
또 그 옛맛을 알아
낼 수 있는 설식이
있을 때 설립이
되는 것이겠군요.

결국 지금껏 말씀드린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내지무의식계”라는 구절은
“일체는 공이다”라는 것을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한 구절이랍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으니 옛값이나
빨리 주세요.
저한테는 일체는
돈이구먼유.

끄으응.



〈불교 총지총 자매결연 지정병원〉

하나한방
병원

◀ 대체의학접목 협진 ▶

하나의원

● 한방 제1과 : 병원장

증증,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환경

● 한방 제2과

남성, 증증, 수험생, 성장, 당뇨, 알레지,
간기능, 남·여 불임

●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간기능,
알레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 가정의학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 가정의학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레지, 비염
소아감기, 종합검진

●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한방물리요법실

◎임상병리실

◎스포츠의학실

◎물리치료실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가동 중!!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약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험생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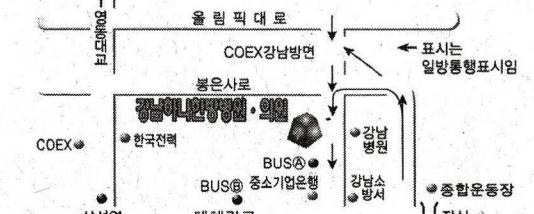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02)569-1011~4

FAX:(02)563-5577



교통편

· 버스Ⓐ : 33, 212

버스Ⓑ : 일반/21, 63-1, 65,

69, 33, 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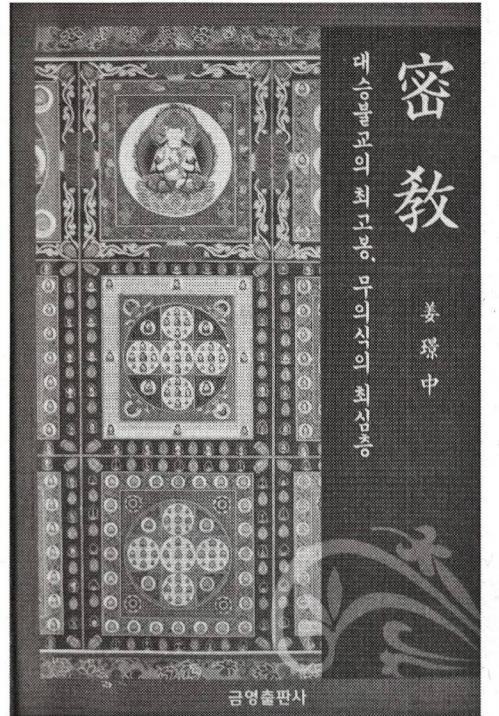
555-2, 571-1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하차

⑧번 출구

대승불교의 최고봉, 무의식의 최심층

종립 동해중학교 강경중 교장『밀교』출판



밀교의 내용과 총 지종의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어 총 지종의 포교지로써 출판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출판된 총지종의 홍보자료 중에서 가장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 총지종에 처음 입교하는 불자들과 교도들에게 흥미진한 교리와 수행법을 체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중 교장은 발간사에서 "밀교는 인간의 욕망을 크게 긍정하면서 구원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실천적 가르침이요, 대승의 심오한 철학을 수렴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관법에 의한 구체적인 실천 수행법을 갖춘 대승불교의 완성이요, 완성된 종교다."

밀교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성불을 앞당길 수 있는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북한 기와보내기, 몽골 헌옷 보내기

대한불교 천태종은 12월 24일 서울 관문사에서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창단식을 가졌다.

가칭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환경과 생명, 인권과 평화, 남북통일, 그리고 국제간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단체로 남북한의 민족문화재 보존, 발굴 및 복원사업, 자연생태계 보존사업, 세계 빈곤국의 인도적 지원사업,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사업, 조사·연구·교육·조직·출판·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천태종 운동 총무원장은 "생명존중사상의 실천은 타인을 해

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내가 가진 물질과 정신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한 몸임을 지각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 바로 이 시대의 우리가 바꿔야 할 밝은 세상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천태종은 지난해에 개성시 영통사 복원공사에 필요한 기와 46만장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몽골국에 헌옷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달마야 서울가자"

"달마야 놀자" 속편 올 1월 제작

2001년 개봉해 관객 400만명을 동원했던 영화 "달마야 놀자"의 속편 "달마야 서울가자"가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타이거피쳐스와 씨네월드가 공동제작하고, 육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달마야 서울가자"는 서울의 한 사찰로 간 스님들이 빛더미의 절을 지키기 위해 연한다.

해 건달들과 한판을 벌인다는 계기로 즐거거리다.

영화에는 "달마야 놀자"에서 청명역을 맡았던 정진영을 비롯해 이문식(해병대 출신 대봉스님), 류승수(목언수행하는 수다쟁이 명천스님), 이원종(현각스님)씨 등이 동일한 배역으로 출연한다.

"머물로 논하지 말라, 곳곳이 나의 집이네"

조계종 통도사방장 월하,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 입적



월하스님



서옹스님

조계종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이 12월 4일 오전에 세수89세, 법립 71세로 입적하였다. 월하스님은 1915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해 1932년 18세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차성화 화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0년 통도사에서 구하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60년 가까운 수행 생활 대부분을 통도사에서 정진하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었었다.

월하스님은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이 12월 13일 오전에 백양사에서 세수92세, 법립70세로 좌탈입암(가부좌사세로 열반)한 채로 입적하였다.

서옹스님은 1912년 논산에서 태어난 뒤 32년 백양사에서 만암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하고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입제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62년 동국대 대학선원장, 1974년 조계종 제5대 총장

을 남기셨다.

또한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이 12월 13일 오전

에 백양사에서 세수92세, 법립70

세로 좌탈입암(가부좌사세로 열반)한 채로 입적하였다.

진각종 보은, 덕화노인요양원 개원

옛 심인당의 유휴공간을 요양원으로 개보수

진각종은 지정심인당을 보은 노인요양원으로 덕화심인당을 덕화노인요양원으로 개보수 한 후 개원하였다.

12월 9일 개원한 보은노인요양원(대구시 원대3가)은 2002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시된 유휴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로, 국고보조와 진각종단의 보조를 받아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보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6평에 1, 2층 건물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생활방식과

물리치료실, 목욕탕,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25명을 입소하였다.

또한 덕화노인요양원(인천시 연수구 동준1동)은 덕화심인당 내 유치원과 사용하지 않는 유

휴시설을 활용해 6개월간 개보수를 한 후 476평에 지하1층, 자

상2층으로 12월 15일 개원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생활방, 식당,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춰 30명으로 중산, 서민층 노인들을 위한 실비노인 요양시설이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림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조)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신행체험 ⑧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동기(대묘행)

(전화사 신경희 회장)

를 도려내듯 다가서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음마니반메 훔을 만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다. 세월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짧은 시절 음마니반메 훔을 만나 종단의 행사나 법회가 있을 때마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서울로 다닌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나의 머리에도 하얀 백발로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내 삶의 유일한 안식처요, 인생의 고난길에서도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 준 사람입니다.

지금 5남매인 자녀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입어 부처님의 법을 따르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서원당을 나와 절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버스안에서 들리는 라디오에서 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삶의 안식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좋은 일을 짓는 것

소리따라 음마니반메 훔의 염송소리도 박자와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흘러 나왔다.

오늘은 읍내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날이면 시골의 모든 사람들이 읍내에 나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골의 축제날로 정되는 행인들로 빨디털 틈이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시골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뿐이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들어서서 장날일지라도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북적거리지도 않고 한산한 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골의 아낙들은 농사철동안 준비해온 과일과 채소들을 장터에 들고 나와 거리에서 팔고 있어 장날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 본 후 절을 찾아 절 주변을 둘러본다. 읍내에 나올 때마다 서원당을 찾아 염송을 하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어 지금은 절이 나의 집처럼 파스하고 다정하기만 한다. 마치 부처님이 이렇게 파스한 모습으로 나를 껴안아 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염송을 오래하다 보면 마치 내가 부처가 되는 것만 같다. 조용히 서원당에 앉아 음마니반메 훔을 염송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영상으로 비춰지며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내가 잘못된 인을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이 든다.'

마지막으로 항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행복한 삶을 영유하게 만들어 주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과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신 법우와 교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진으로 보는 2003년



법황사, 흥국사 사원신축으로 사원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밀교사상사개론 출판과 수성 대종사 종령추대로 교상과 사상을 확립한 한 해...



경로법회

"자비행의 실천으로 보살도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림원 유스호스텔에서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들 600여명을 모시고 불자 연예인 백남봉씨를 초청하여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하여 모처럼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으로 가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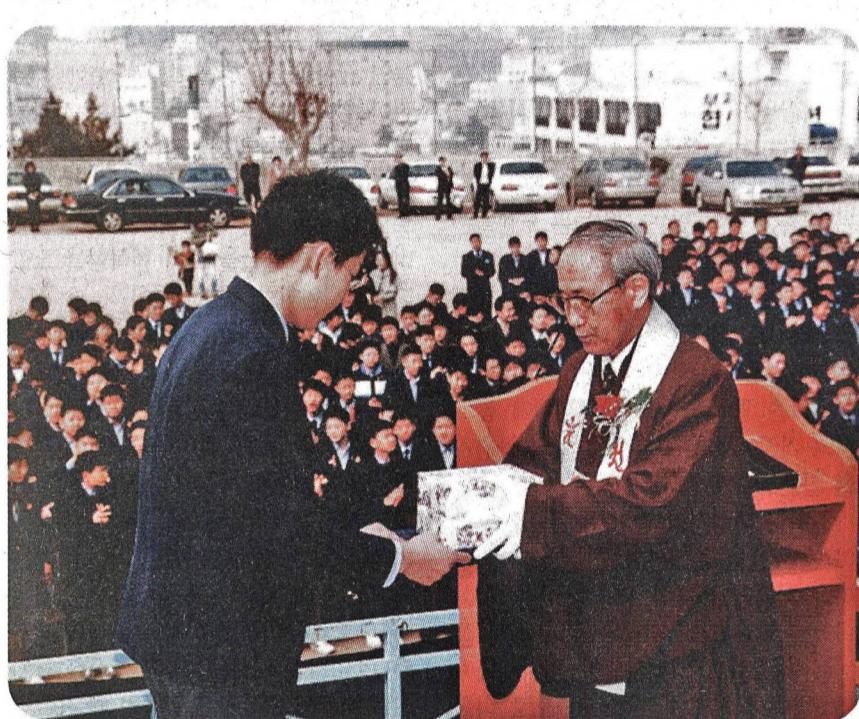
수성 대종사 종령 추대법회

11월 18일 제8대 수성 종령 추대법회를 교계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을 모시고 봉행하였다. 수성 종령은 "원정 종조님의 결과정진법을 계승하고 지내증의 수행으로 스승들은 더욱 철저한 계행과 스승으로서의 시명을 다하며, 교도들은 초발심의 자세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수행생활을 하라."고 법을 설하셨다.



청소년수련대회

"전통을 배워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안동 일대에서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화회탈춤배우기, 전통한지 체험, 안동 하회마을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자비정신과 근본교리와 종지종의 수행법 및 한국전통의 우수성을 고취시켰다.



종립동해중학교 졸업식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수성 동해중학교 이사장이 성적우수자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총지종에서는 불교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자신의 기슴속에 간직한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지나
고 갑신년 한해가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미년 한 해 동안 대외적으로 이라크전쟁, 각종테러, 경제한파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사라지게 하였고, 불교계에서는 청화, 정대, 월하, 서옹스님 등 대덕스님들이 잇달아 열반하고, 종단내적으로 특정 대종사님의 열반과 수성 대종사의 종령추대 등 슬프고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슬픈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쁜 일만 고이고이 간직한 채 갑신년 새해에는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교도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8월 말부터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정보화시대에서 온라인상의 포교를 활성화하고 총지종의 종지 및 수행체계, 밀교에 대한 기초이론, 신행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신속성과 정보전달의 편이성, 관리의 편리성을 주안점으로 총지종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으로 신행상담을 하여 중생 제도를 위한 포교의 제일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방생법회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방생법회를 7월 16일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경남교구는 경남 함양군 농월정에서, 대구경북교구는 합천군 용문정에서 가졌다.

방생법회는 중생을 애민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보살의 자제가 자재하고 좋은 일을 기쁘게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업이 생기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놓아 주었을 때 꼬리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업장을 방생자비형으로 녹일 수 있어야 한다.



제7대 종령 특정 대종사 입적

원정 대성사님과 함께 총지종을 창종하시고 종단의 종풍과 기풍을 세우며 종단의 법맥을 이어오시고, "화합하고 화평하여 일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침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말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시던 특정 대종사님께서 5월 4일 기로원에서 일적하여 종단내 스승 및 교도들의 애도속에 특정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하는 고결식을 가졌다.



『밀교사상사 개론』 출판

밀교사상사 개론이 3년여 동안 동국대학교 서운길 교수와 정태혁 교수 등 밀교의 권위자들과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전국 스승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6월 23일 통리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밀교사상사개론은 밀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로서 밀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밀교의 의미를 부각시켜 밀교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었다.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 신축 완공

광주 법황사는 1월말 남구 구동에 368평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게 신축하였으며, 서원당 내부에 달집과 만다리를 배치하였다. 전주 흥국사는 4월 원산구 호자동에 30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으로 신축하여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